

# 대학생이 인식한 부모애착과 부모됨의 동기에 관한 연구

마지순\*, 강영식\*\*, 박정환\*\*\*

\*거제대학교 유아교육과\*\*명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제주대학교 교육학과

e-mail : jisunsky@koje.ac.kr

## Parent attachment correlation between parent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

Ji-Sun Ma\*, Young-Sik Kang\*\*, Jung-Hwan Park\*\*\*

\*Koje University, MungSin University, Jeju National University

###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인식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착과 부모됨의 동기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대학생들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는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높았지만 성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들의 어머니의 의사소통과 신뢰감 애착은 아버지의 의사소통과 신뢰감의 애착과 정적상관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소외감과 부적상관이 있었다. 어머니의 애착유형 하위요인 중 어머니의 소외감 애착이 높으면 아버지와 의사소통과 신뢰감이 낮았다. 반면 어머니의 소외감 애착이 높으면 아버지의 소외감도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착은 부모됨의 동기와 정적상관이 있었다.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요소 중 의사소통과 신뢰감 애착이 높을수록 부모됨의 동기가 높았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부모와의 애착은 자신이 부모가 되고자하는 동기에 영향을 미침으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예비 부모교육은 대학생이 미래의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와 애착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 1. 서론

애착은 부모-자녀 관계를 전 생애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써 초기양육자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건강한 성격으로 발달할 수 있으며[8] 개인의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생애초기에 형성된 애착은 아동의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양육자와의 사이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과 수정 및 적응의 과정을 거쳐 내적인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

생애초기에 형성된 애착은 인간의 발달과 맞물려 계속 성장하고 변화된다. 초기의 애착은 생존하기 위해 애착 인물의 돌봄을 필요로 하며 애착조직원 또한 애착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 형성된 자기의 내적 실행모델을 그 내용으로 한다. 즉 영유아기의 애착이 정서적으로 안정 기저를 제공받는 것이라고 볼 때 이는 자신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 반면 청소년기의 애착은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배우면서 생겨나는 강력한 정서 상태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즉 애착의 형성은 인생초기에 어머니에 의해 형성되고, 아버지, 조부모, 그리고 다른 친인척에 대한 애착으로 확장되어 간다. 이렇게 형성된 애착은 다시 또래 및 배

우자로 확장되며 더 이후에는 자녀와 동료 혹은 손자녀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인간발달에 따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구성원들도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화되며[10] 구성원의 확대와 더불어 세대 간의 전이가 이루어진다[18]고 볼 수 있다.

부모됨의 동기를 형성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태도를 결정하는 일이며 이는 개인의 생애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부모됨은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등의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6]으로 실제 부모가 되기 이전의 심리적인 동기로서 획득되고 선택되는 것이며 각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을 형성하여 새로운 삶을 영위하여야 하는 가족구성성에 비추어볼 때 부모됨에 대한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3,11,14].

부모됨의 동기에 관한 Morahan- Martin[17]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연속성, 전통, 안정, 부모기의 역할, 자녀를 가짐으로서 얻는 목표 및 인센티브, 부모됨을 통한 사회적 지위 획득 등과 관련된 동기가 더 높게 나타남으로서 더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이와 유사하게 박화은 등[3]의 연구에서도 부모됨의 동기에 대하여 대학생들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아

버지의 역할인 도구적 동기가 가장 높음을 발견했다.

부모애착에 대한 연구가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모됨의 동기와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대학생의 부모애착에 대한 연구는 부모애착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래 애착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을 뿐이다[2,7,9,16].

대학생 시기는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는 시기로서 그 동안의 부모 관계를 수정하고 통합할 수 있으며 변형이 가능한 시기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까운 미래에 부모가 될 사람들인 대학생들의 건강한 미래의 가족 형성을 위하여 부모됨에 대한 준비가 요구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이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그들의 부모와 어떠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부모됨의 동기와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미래의 건강한 가족 역할을 수행 하기위한 예비 부모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의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대학생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대학생이 인식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착과 부모됨의 동기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익산시에 소재한 W 대학교의 학생 223명이다. 자료 수집은 W 대학교의 부모-자녀 관계론을 수강하는 대학생 245명을 대상으로 2009년 3월 둘째 주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분포하였으며, 연구대상 연령은 18세에서 31세까지로 평균연령은 20세였다. 학년에 따라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체적으로 볼 때 77.6%가 결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학년이 결혼을 하겠다는 비율이 88.9%로 가장 높았다.

###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는 대학생들의 일반배경에 대한 인구변인학적 문항과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 그리고 부모됨의 동기에 관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부모애착 척도는 1987년 Armsden과 Greenberg에 의해 개발된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정정숙[13]이 번안하고, 임지연[9]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적용하였다. IPPA는 부모애착 척도로써 부모의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부모됨의 동기는 유안진·신양재[6]의 도구 18개 문항과 최항미·이태섭[14]의 6개 문항, 양옥경[4]의 8개 문항을 통합한 21개 문항에서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정 과정을 거쳐 13개 문항을 선정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던 정은순[12]의 도구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조상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고 대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 정도와 부모됨의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t* 검증을 하였으며, 대학생들이 인식한 부모의 애착과 부모됨의 동기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 3. 결과 및 해석

### 3.1 대학생이 인식한 부모애착

대학생들의 부모애착에 대한 인식은 표 2와 같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M=53.52)이 아버지의 애착(M=50.14)보다 높게 나타났다(*t*=4.015, *p*<.001). 이를 하위영역별로 보면 어머니의 의사소통 애착(M=34.96)이 아버지(M=33.44)보다 높았으며(*t*=3.769, *p*<.001), 어머니의 신뢰감 애착이(M=37.96) 아버지(M=36.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021, *p*<.001). 반면 소외감 애착은 아버지(M=19.47)가 어머니(M=19.40)보다 높았지만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었다(*t*=-.282, *p*>.001).

즉, 대학생들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사소통, 신뢰감 애착에서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에게 더 높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대학생들의 부모애착 (n=223)

애착유형		M	SD	<i>t</i>
의사소통	어머니	34.96	5.60	3.769***
	아버지	33.44	7.52	
신뢰감	어머니	37.96	6.26	5.021***
	아버지	36.17	7.06	
소외감	어머니	19.40	5.72	-.282
	아버지	19.47	5.48	
전체	어머니	53.52	14.99	4.015***
	아버지	50.14	17.21	

\*\*\**p*<.001

### 3.2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는 표 4와 같이 부모됨의 평균 55.72로 총합의 중간 값인 32.50 보다 높아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됨의 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

로 분석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의미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t=1.958, p>.05$ ). 즉,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는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표 4]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

성별	N	M	SD	t
남자	62	56.85	7.53	1.958
여자	161	54.59	8.18	
전체	223	55.72	8.05	

### 3.3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부모됨의 동기와의 관계

#### 1) 대학생의 어머니 애착과 아버지의 애착 관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들이 인식한 어머니 애착과 아버지 애착은 정적상관( $r=.689, p<.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 애착의 전체는 아버지의 의사소통 애착( $r=.568, p<.001$ )과 신뢰감의 애착( $r=.547, p<.001$ )과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높았으며 특히 어머니의 애착이 높을수록 아버지와 의사소통과 신뢰감 애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분석하면 어머니의 의사소통은 아버지의 의사소통 애착( $r=.611, p<.001$ ), 신뢰감 애착( $r=.502, p<.001$ )과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신뢰감 애착은 아버지의 의사소통 애착( $r=.601, p<.001$ ), 신뢰감 애착( $r=.687, p<.001$ )과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소외감 애착은 아버지의 의사소통 애착( $r=-.335, p<.001$ ), 신뢰감 애착( $r=-.355, p<.001$ )과 부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소외감과 아버지의 소외감 애착은 정적인 상관( $r=.798, p<.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대학생이 인식한 부모 애착유형간의 관계 (n=223)

애착유형		아버지 애착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전체
어머니 애착	의사소통	.611***	.502***	-.332***	.524***
	신뢰감	.601***	.687***	-.382***	.603***
	소외감	-.335***	-.355***	.798***	-.054
	전체	.568***	.547***	.034	.689***

\*\*\* $p<.001$

#### 2) 대학생이 인식한 부모애착과 부모됨의 동기와의 관계

표 6에서와 같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착은 부모됨의 동기와 정적상관( $r=.305, p<.001, r=.290, p<.001$ )이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착이 높다고 인식하면 부모됨의 동기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보면 어머니 의사소통 애착( $r=-.$

332,  $p<.001$ ), 신뢰감 애착( $r=-.273, p<.001$ ), 아버지의 의사소통 애착( $r=-.298, p<.001$ ), 신뢰감 애착( $r=-.259, p<.001$ )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학생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착이 높다고 인식하면 부모됨의 동기가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하위요인 중 어머니와 아버지의 의사소통 애착과 신뢰감 애착이 높으며 부모됨의 동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의 의사소통과 신뢰감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애착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신뢰감이 잘 형성되어 부모애착이 높은 사람은 부모됨의 동기가 높음을 시사한다.

[표 6] 대학생이 인식한 부모애착과 부모됨의 동기와의 관계 (n=223)

애착유형	어머니의 애착			아버지의 애착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부모됨 동기	.332***	.273**	-.128	.305***	.290**	-.105

\*\*\* $p<.001$

##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인식한 부모애착과 부모됨의 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더 높았으며, 의사소통, 신뢰감 애착에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대학생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여자대학생들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신뢰감 애착에서 아버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내적실행모형을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써, 남자들은 여자보다는 가족이외의 다른 성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여학생들에게 높게 나타난 결과는 어머니의 역할이 양육적이고 보호적이고 표현적인 면이 있으며 여학생들은 이에 대한 내적실행모형을 형성하여 어머니와의 애착을 더 높게 인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지만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을 하여 부모가 되겠다고 50%이상 응답하였던 Calvert 와 Stanton[15]와 김은주[1]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써 대학생들은 미래의 부모가 되려

는 동기가 높게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됨의 동기를 높게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예비 부모교육이 요구된다.

셋째, 대학생이 인식한 어머니 애착과 아버지 애착은 정적인 상관에 있었다. 즉 어머니 애착을 높게 인식한 대학생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감의 애착이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보면 어머니의 의사소통 애착이 높으면 아버지 애착 전체가 높게 나타나며 특히, 아버지의 의사소통과 신뢰감의 애착은 높아지며 신뢰감이 높아질수록 아버지의 전체 애착이 높아지며 하위영역 중 아버지의 의사소통과 신뢰감의 애착이 높아진다. 즉 어머니의 신뢰감 애착이 높으면 아버지의 소외감 애착이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버지의 의사소통이나 신뢰감 애착에 어머니의 신뢰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로써 아버지애 대한 소외감 애착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역으로 보면 아버지의 소외감 애착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나 신뢰감 애착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의사소통과 신뢰감 애착은 소외감 애착을 낮게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시기는 내적실행모델이 수정, 재통합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부모와의 애착형성과정 과정과 어떻게 발달하고 이것이 주변사람들과의 애착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의 심층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남학생들이 좀 더 애착을 잘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녀 부모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수정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도록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들에게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내용의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적인 측면의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은주. 여대생의 부모기 인식, 부모됨 동기 및 부모역할 동의, 아동간호학회지, 2(1), 89-95. 2006.  
 [2] 김은진.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3] 박화윤·최재숙·마지순. 부모역할, 자녀양육과 양육태도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아동학회지, 23(5), 65-76. 2002.  
 [4] 양옥경. 한국 가족개념에 관한 대학생의 인식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175-199. 2001.  
 [5] 유안진·김연진. 부모교육. 서울: 정민사. 1987.  
 [6] 유안진·신양재.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와 부모역할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141-155. 1993.  
 [7] 이내은.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청소년의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8] 이서은·이재창. 대학생의 애착유형, 부모·또래애착, 그리고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947-963. 2005.  
 [9] 임지연. 부모에 대한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0] 장휘숙. 애착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6-277. 2006.  
 [11] 정미라·이희선·배소연. 대학생들의 예비 부모교육에 관한 인식 및 요구. 유아교육연구, 15(1), 179-197. 1995.  
 [12] 정은순. 대학생의 부모됨에 대한 인식조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3] 정정숙. 자아정체감과 독립성 및 애착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14] 최항미·이태섭. 안양대학교 학생들의 예비부모교육에 관한 인식조사. 인문과학연구, 7(1), 232-252. 1999.  
 [15] Calvert, B. & Stanton, W. Perception of parenthoo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15 year-old girls and boys. *Adolescence*, 27, 315-329. 1992.  
 [16] Ketterson, T., & Blustein, D. L.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167-178. 1997.  
 [17] Morahan-Martin, J. Consider the children: Is parenthood being devalued? *Psychological Record* 41, 303. 1991.  
 [18] Sroufe, L. A., Jacobvitz, D., Mangeldorf, S. DeAngelo, E., & Ward, M. J. General boundary dissolution between mothers and preschool children: A relationship systems approach. *Child Development*, 56, 317-325. 1985.